



소나무

- ▶ 과명 : 소나무과
- ▶ 학명 : *Pinus densiflora*
- ▶ 한명 : 赤松, 陸松, 女松
- ▶ 일명 : 아카まつ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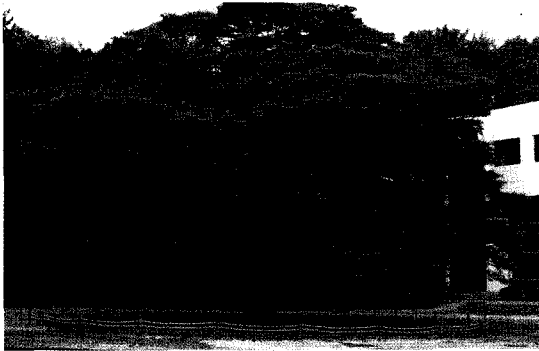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1위를 차지하는 소나무는 전국 산림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생활과 매우 친숙하고 목재로도 중요한 자원이다. 애국가의 남산위에 저 소나무라고 부른 소나무는 초록의 잎과 붉은 줄기의 껍질을 입고 우람하게 하늘로 솟은 소나무는 강직한 민족의 기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한민족의 상징이다. 최근 들어 솔잎혹파리, 소나무 재선충병등 해충의 피해로 그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1. 생태적 특성

북부의 고원 지대를 제외 한 전국의 표고 1,300m이하에서 자생하고 지리적으로는 일본, 만주에 분포하는 상록침엽 큰키나무로 수고 35m, 직경 180cm에 달한다. 극양수로서 양지인 곳에서 천연하중 갱신이 잘 이루어지며 대단위 군계를 형성하고



▲ 다행송



▲ 반송나무



▲ 소나무

건조에 강하여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내한성도 대단히 강하다.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은 보통이나 병충해에는 약한 편이다. 뿌리는 직근성으로 일시 이식은 불량하나 이식기술의 발전으로 근래에는 높은 활착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이나 공단 조성, 도로개설 또는 확장시 자생하는 소나무를 다른 장소에 이식하였다가 조경용으로 활용하는데 짧은 기간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고색이 깊은 공원이나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고 훼손되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의미에서 권장할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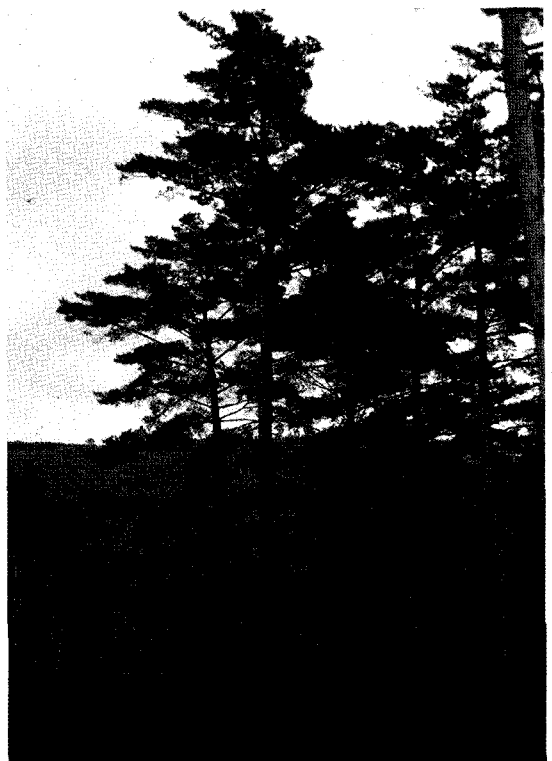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보통 붉은색이고 오래된 수피는 흑갈색이며 잎은 2개씩 모여 나고 비틀리며 길이

8~9cm, 넓이 1.5mm로서 밑 부분의 잎은 2년 후에 떨어진다. 꽃은 한나무에서 암수가 따로 5월에 피고 열매는 길이 4.5cm, 지름 3.0cm의 구과로서 계란형 또는 타원형이며 이듬해 9~10월에 황갈색으로 익는다.

소나무는 잎의 특성이나 수관, 수간, 형태와 솔방울이 달리는 위치에 따라 19변종(var.)과 품종(for.)으로 구분되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변종과 품종은 다음과 같다.

변종으로는 줄기가 지표면에서부터 여러개가 나와 우산모양을 이루는 다행송(var. umbraculifera), 침엽기부는 녹색이나 그 밖의 대부분은 황금색을 띠고 있어 계절에 따라 잎색이 다소 변하는 황금소나무(var. aurea), 솔잎이 황색 얼룩무늬를 갖고 있어 호랑이무늬처럼 보여 범솔(var. tigrina) 등이 있으며 품종으로는 강원도 금강산에서 경상북도 조령으로 통하는 종관상맥 가운데 특히 계곡



▲ 금강송

부위의 토양수분 조건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줄기가 곧고 수관이 좁으며 곁가지는 가늘고 짧다. 지하고는 높고 수피색갈은 아래쪽은 회갈색이고 위쪽은 황적색인 것을 금강소나무(for. erecta)라고 하며 흔히 강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표면 1m내외에서 여러개의 줄기가 갈라지고 주간이 없으며 수관이 우산모형을 이루는 것을 반송(for. multicaulis), 가지 및 정아가 아래로 드리워지는 것을 처진소나무(for. pendula)라고 하며 그 외에도 다수의 품종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늘 푸른침엽수로서 최근 들어 대학 캠퍼스나 공원, 도로변 가로수로도 많이 식재되고 있다. 병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면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에서도 생육




▲ 처진소나무

이 좋으므로 아름다운 수형을 감상할수 있는 관상수로 훌륭하다.

4. 번식법

번식은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기건저장하였다가 파종 1개월전에 노천매장 하였다가 파종하면 많은 묘목을 얻을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는 재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강직하고 무늬가 아름다워 건축용재, 펄프재, 또는 궁궐의 기둥감으로 사용되며 솔잎, 수피중에 내피, 송진, 송화가루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가치가 높다. 



▲ 황금 소나무